

금호석유화학 연세의료원에 3천만원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박찬구·사진)은 7일 암 예방과 치료 사업에 써달라며 연세암전문병원 건축 기금 3000만원을 연세의료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1969년 국내 최초로 개원한 연세암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보유한 연세암전문병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 중국사학회장에 유원적 목포대 교수



유원적 목포대 사학과 교수 가 최근 중국사학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유 회장은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81년부터 목포대에 몸담고 있으며 목포대 박물관장, 목포대 인문대학장, 중국고대사학회장, 역사문화학회장, 전남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중국사학회는 중국사의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 및 유관 지역 역사의 과학적 인식을 도모하는 단체로 45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조계종 총무원장에 정만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기획실장 원답 스님의 후임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인 정만 스님(사진)을 8일 임명했다. 정만 스님은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은 '이웃을 돋는 사람'을 대표이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 공동대표인 지현 스님을 임명했다.

## 남미특사, 불우이웃에 쌀·라면 기증



세계불교미륵대종 남미특사(주지 법흥스님)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달라며 강진군 군동면 사무소에 쌀 100포대와 라면 50박스를 기탁했다.

군동면은 이를 쌀과 라면을 11개 읍·면의 어려운 이웃 150명과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하고 위문 격려했다.

주지 법흥스님은 지난달 군동면 노인복지회관에 300만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법흥스님은 최근 6년간 지역사회와 자원봉사를 한 공로로 다음달 11일 강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봉사분야 상'을 받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백종택(화순개인용달 대표)·이순임씨 장남 선계군 홍종룡(광주일보 조사부장)·박영남씨 차녀 지역 양=10일(일) 오후 12시40분 광주 서구 웨딩의전당급회 30층(아시아나홀), 062-350-3500.

▲김일태(영암군수)·임향숙씨 차남 준영군 이호순·황일순씨 장녀 혜연양=9일(토) 낮 12시 삼호읍 호텔 현대(영암)

▲김영진(국회의원)·윤순남씨 장남 의정군 신웅봉·공영희씨 장녀 언지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63빌딩 2층(그랜드볼룸).

▲조동락·오세윤씨 장남 현승군 신문용(목포대 교수)·정유선씨 장녀 지명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공항 터미널 3층.

▲정금실씨 장남 손 혁군 김정길(김정길내과의원장)·최란희씨 차녀 지원양=9일(토) 오후 3시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강남 호텔 2층(샴페인홀).

▲김경환·이정희씨 장남 현준(성진지오피)·군 정권태(전남대 보건진료소)·김미애씨 차녀 지현(전남대 언어교육원) 양=9일(토) 오후 2시 허리레이인 광주호텔 3층(로즈홀).

▲김수공(농협중앙회 상무)·정필연(광주진월초교 교장)·차남 윤호근 박동찬(광주MBC 사업국장)·송정(광주보건대 교수)·차녀 혜민양=9일(토) 낮 12시 광주 허리레이인 호텔 3층(컨벤션홀).

▲박동만·양연숙씨 장남 정현군 조병원(영진에너지 사장)·김효숙씨 차녀 소현양=10일(일) 낮 12시 40분 허리레이인 광주호텔 3층(로

“아내의 웃음, 암투병 가족과 나누고 싶어요”

아내 일기 역어 유고집 펴낸 송원중 박선제 교사

지난 2006년 11월 박선제(52·송원중 교사)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20년을 넘게 삶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내 조송희씨가 대장암 3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과 24차례에 걸친 항암치료에도 그녀는 지난해 5월 눈을 감았다.

유치원 교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사진작가이자 교사인 한 남자의 아내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공백은 박씨에게 너무나도 커졌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 보낸 지 2개월 후 발견한 그녀의 흔적들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됐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작고 소중한 모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삶의 이야기와 투병 중 힘들었던 시간을 행복한 일기로 썼다.

놓았다.

박씨는 지난 8개월 동안 작업을 거쳐 그녀의 마지막 글들을 묶었다. 그리고 최근 '그래서 오늘도 Happy입니다'를 폐냈다. 자신이 직접 찢은 사진과 가족들의 모습도 함께 실었다. Happy는 조씨의 카페 아이디어로 필명이다. 박씨는 "해피가 남긴 삶을 마무리 해주고 싶었고 더불어 암과 투병중인 가족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드리고 싶었다"고 폐낸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책을 광주 성묘한병원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 선물할 계획이다. "흔히들 호스피스 병동을 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마지막에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아내와 함께한 호스피스

병동은 두렵고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축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느낀 호스피스 병동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천국으로 통하는 정거장이었다. 고운 미소 가득한 얼굴들만이 있었다.

박씨는 "아내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장애우와 다문화 가족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기도 했다"며 "그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책의 수익금은 전액 호스피스 병동에 책을 선물해 그들이 희망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 소망이 있다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해피니까."(36쪽·해피의 사랑방 중)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故 조송희(왼쪽)씨와 남편 박선제씨.

현빈, 사격솜씨도 '어메이징'

주·야 사격훈련서 만점 '특등사수' 등극

최근 해병대 입대한 현빈(29·본명 김태평·사진 가운데)이 경북 포항의 신병 훈련소에서 수준급 사격 실력을 보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로 해병대 출신 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이날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해병대 1137기로 훈련소에 입소한 현빈은 현재 5

주차 교육을 받고 있다.

현빈은 2주차에는 화생방 훈련과 전투병 생존법 등의 교육을 받았고, 3주차에는 공수기초훈련과 참호·격투병 훈련, 전투수영 등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어 유격기초훈련, 수류탄 투척훈련 등을 하게 된다.

현빈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까지 진행된 4주차 훈련의 주·야간

개인화기사격 프로그램에서는 20점 만점을 받았다.

그는 주간 사격훈련에서 20발 중 19발을 사격 표적에 명중시켰고, 야간 사격훈련에서는 10발 중 10발 모두

두를 맞혀 특등사수로 만점을 받았다고 해병대측은 설명했다.

주간 사격에서 18발 이상, 야간 사격에서 9발 이상은 명중시킬 때 특등사수가 된다.

/연합뉴스

김대중 前 대통령 제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계승 발전 및 학술·연구·문화사업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한다.

시상식은 5월 7일 제44회 황토현 동학축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위원회는 시상자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10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광주초등생 120명 '어린이 명예기자' 위촉

광주시는 7일 오후 3시 광주 지역 초등학생 12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명예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어린이기자단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gjkidblog)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주변 지역 소식과 시정 관련 소식을 작성, 광주시에 제보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명예기자들의 활동을 통해 시정의 눈높이를 순수한 어린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또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

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취재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명예기자는 어린이 대상 연극 등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하고, 시정 주요행사장, 유적지, 주요시설 견학 등 견문을 넓히고 특집기사 작성도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명예기자들의 활동을 통해 시정의 눈높이를 순수한 어린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칼린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선임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에 선임됐다.

7일 전북도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 위원회에 따르면 박칼린을 임기 3년의 소리축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확정했다. PD 출신의 김형석 교수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박칼린이 기획력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국악에 대한 조예가 깊어 삼고초려 끝에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광주여대-목포 해군3함대 학군 협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사진 왼쪽)는 지난 6일 오전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문병복)와 학군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여대 제공>

총장로타리클럽, 복지시설에 김치냉장고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총장로타리클럽(회장 신복수)은 최근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사장모아주간보호센터와 애일의 집에 김치냉장고를 기증했다.

<총장로타리클럽 제공>

장례식장에 김치냉장고 봉사

장례식장에 김치냉장고 봉사

장례식장에 김치냉장고 봉사

24시간대기 (062)250-4455

화족

▲백종택(화순개인용달 대표)·이순임씨 장남 선계군 홍종룡(광주일보 조사부장)·박영남씨 차녀 지역 양=10일(일) 오후 12시40분 광주 서구 웨딩의전당급회 30층(아시아나홀), 062-350-3500.

▲김일태(영암군수)·임향숙씨 차남 준영군 이호순·황일순씨 장녀 혜연양=9일(토) 낮 12시 삼호읍 호텔 현대(영암)

▲김영진(국회의원)·윤순남씨 장남 의정군 신웅봉·공영희씨 장녀 언지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63빌딩 2층(그랜드볼룸).

▲조동락·오세윤씨 장남 현승군 신문용(목포대 교수)·정유선씨 장녀 지명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공항 터미널 3층.

▲정금실씨 장남 손 혁군 김정길(김정길내과의원장)·최란희씨 차녀 지원양=9일(토) 오후 3시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강남 호텔 2층(샴페인홀).

▲정명훈(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애순(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씨 장남 승우군 위이환·김옥분씨 장녀 현정양=10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062-370-5442.

▲김경환·이정희씨 장남 현준(성진지오피)·군 정권태(전남대 보건진료소)·김미애씨 차녀 지현(전남대 언어교육원) 양=9일(토) 오후 2시